

시 초

백두산을 안고사는 처녀

박 다 정

딸의 마음

어머니는 웃으며 바래주셨다
수천리 먼
백두의 성지로 떠나는 딸을
그리도 애지중지
정을 다해 키운 외동딸을

내가 좋아하는 순두부 해놓고
어머니 오늘도 이 딸 생각에
수저도 들지 못하시리
저녁마다 들려주던 이 딸의 노래소리
귀전에 떠올리며 가슴에 안아보며
입속말로 다정히 날 불러도 보시리

지금은 김장철 바쁜 때
녀자손이 제일 그리운 때

딸이 없었다면 어찌나
어머니 은근히 자랑하던 내 일솜씨
도울수 없는 딸의 마음

고향에 대한 모든 정 언제에 묻으며
이 딸은 달리고 또 달리나니
완공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 높이 모실 환희의 그날로

어머니시여 받으시라
자랑스런 백두청춘 그 이름 지닌
이 딸의 어엿한 경례를
바래우던 그날처럼 밝게밝게 웃으시며
성장한 딸자식의 인사를 받으시라

나의 어깨

내 어릴적 손퐁금 배울적에
어머니는 늘쌍
내 손퐁금을 메고다니셨다
손퐁금에 놀리워
키가 크지 못한다시며

어머니는 자주도 무대뒤에 오셨다
박수소리 채 몇기도 전에
손퐁금부터 벗겨주시며
정말 용타 내 어깨도 두드려주시었다

크지 않은 악기조차
어머니 메워주기 저어하던
이 딸의 어깨우에

묵직한 흙마대가 어영차 올라간다
아름드리 통나무도 썩 둘러멘다

붉은기 펄펄 혁명가요 부르며
백두의 산발을 달리며 억세어진 어깨로
애지중지 키워준 어머니조국의
큰 짐을 닮은 털어지고
청춘은 오늘도 기세차게 달린다

오, 나의 어깨로
일떠세우려나 떠받들어올리려나
성스러운 백두의 푸르른 고원에
더없이 자랑스러운 시대의 기념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내가에서

혼합물 이고지고 몇백리를 달렸던가
불먹은 담벽처럼 녹초가 되었어도
호호 깔깔

서두수의 달밤은 처녀들 세상
남동무들 작업복 다투어 뺏어들고

하얀 비누거품 동동 떠올리는 손
억세어진 팔뚝마다 구울러내리는
방울방울 구슬같이 고운 물방울

서두수야 너 말해보렴
옛말속의 선녀들 예 내려왔나
아무리 힘들어도 지칠줄 모르고
갈수록 싱싱 예뻐만지는
선녀중의 선녀들이 백두청춘 우리라고

이밤 언뜻 지나고

아침노을 붉게붉게 피어날 때면
발깃발깃 꽃같이 고운 처녀들
또 하루 벅찬 건설장에
서슴없이 뛰어들리니

또다시 흐드는 청높은 웃음소리
큰 빨래 작은 빨래 힘힘 행구며
몸도 마음도 깨끗이 씻으며
하루의 피곤도 훌훌 떠내려보내는
서두수의 달밤은 좋아

나의 집은

나의 집은
여기서 2천여리 떠나면 곳
그래도 늘 생각합니다
지금쯤 어머니 저녁준비 하시겠지
두고온 내 습작집 살펴보고계시겠지

나의 집은
여기와 계절조차 다른 곳
찾는 오는 지금도 풍요한 가을
그려봅니다
뒤뜰안에 무르익은 노란 감알들을

나의 집 생각하면
내 몸은 어느덧

따뜻한 어머니품에 안긴듯싶습니다

고향집 생각할 때면
서둘러 일손을 더 굳게 잡습니다
내가 쌓은 석축이
내가 나른 혼합물이
물길굴로 이어지고 언젠가 굳어져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그날엔
더 밝게 빛을 뿌리려니

그렇게 뿌리는 맘
그렇게 바쳐가는 마음이
백두의 산줄기를 따라 흘러서
내 집에도 행복으로 스밀겁니다
내 조국에 황홀경을 펼칠겁니다

세번째 일기장을 펼치며

어머니
난 오늘 세번째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쳐요
저녁노을 곱게 비긴
언제를 바라보며

책에서 교실에서 배운것보다
한없이 크고 소중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 그 모든것을
백두산을 안고사는 나의 숨결이
한권 두권... 이 세번째 일기장에도
갈피갈피 숨쉬게 될거예요

×

첫번째 일기장
푸른 배낭속에 어머니 넣어주신
표지 정히 씌운 빨간 수첩엔
백두기슭에 뿌리내리는
애기나무의 이악한 모습이

눈물과 웃음 노래로 어울려
사진처럼 또렷이 남아있어요

함마명수처녀가 너무 부러워
봉대감고 운밤 새운 나를 붙잡고
어진 눈에 눈물이 반짝이면서
분대장이 놓아준 딱총
-앗 따라 엄마 언니-

호호호 어머니
그날의 물집투성이 내 손바닥에
오늘은 팡팡 굳은살이 박혔어요
그 손으로 뜨거이 어루쓸며 부르는
백두의 노래 흰눈의 노래

조국을 위하여 바치는 청춘들이
뜨겁게 부르는 백두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숭엄하게 들리는지
어머닌 아마 상상도 못하실거예요

×

두번째 일기장—

작가선생님 보내주신 붉은 수첩
그 앞페이지엔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한생 자랑스럽게 안고살리라
백두의 청춘시절을
페이지와 페이지에선 올려나와요
높아진 나의 숨결 나의 노래

통나무와 함께 나딩군
설한풍 몰아치던 겨울밤
산발을 흔들던 대대장의 목소리
—눈을 뜨라
눈 뜨고 저기 저 백두령봉을 보라!

광란하는 눈보라 눈보라...
백두령봉은 여기서 멀어요
나는 보았어요
칼바람 몰아치는 봉우리에 불끈 떠오르는
떠올라 온 누리를 황홀하게 물들이는 해돋이
아, 백두의 장엄한 해돋이를 보며
어머니 나의 첫 노래가 태어났어요

×

내 생일날에 정치부대대장동지
온 대대앞에서 엄숙히 기념으로 주었어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대원
○○○동무에게

짜짜그르 박수속에 받은 이 일기장에선
백두청춘 우리가 목청껏 더칠
환희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태어날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가슴설레는
완공의 그날
어머니 난 이 붉은 수첩들을
백두청춘이 가꿔온 붉은 꽃다발로
우리 원수님 기쁘게 오르실
청춘언제우에 정히 펼쳐드리고싶어요

항일의 선렬들이
청춘을 바친 성스런 백두대지에
아름다운 화폭으로 수놓아질 청춘언제
그앞에 부끄럼없을 나의 청춘
어머니 난 오늘
세번째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쳐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황해북도려단 대원)